

폴리미래, 신한 · 씨티은행서 1350억원 차입

폴리미래가 7월9일 신라호텔에서 신한은행과 씨티은행 서울지점을 주간사로 국내외 7개 은행이 참가하는 공동대주단과 1350억원의 신디케이션론(5년 만기) 조인식을 가졌다.

차입조건은 3년 회사채(A+ 등급)에 수익률 +1.70%로 최근 국내기업에 대한 열악한 대출환경에 비해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평가된다.

<화학저널 2004/07/12>